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1.21(금) ~ 2025.11.27(목)

제공일시 2025.12.5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-398-6432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1.21(금) ~ 2025.11.27(목)

제공일시 2025 12 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글로벌 정책

1. "철강산업 탄소배출 줄여라"...중국, 2028년부터 규제 본격화

- 중국 환경부가 2024·2025년 국가탄소배출권거래제도(ETS)에서 철강·시멘트·알루미늄 산업의 배출 총량과 할당 계획을 발표하며 철강 산업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했음
- 이번 계획에는 철강 업종의 총 배출권 산정 공식과 기업별 배출량에 따른 차등 배분 방식이 포함됐으며, 중국 정부는 2027년까지 주요 배출 산업 대부분을 ETS 안으로 편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음
- 철강 산업은 2027년까지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실질 규제는 2028년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임

[\(EBN 2025.11.26\)](#)

2. IMO 총회, '탈탄소 규범 집행 단계' 진입...K-조선·해운 전략 지형 바꾼다

- 국제해사기구(IMO)가 제34차 총회에서 2024~2029 전략계획과 2026~2027 예산을 확정하며 탈탄소 전략 이행 규정, 대체연료 선박 안전기준, 자율운항 규범 틀, 해운단일창구(MSW) 의무화 절차 등 핵심 규범을 조정해 글로벌 규범 체계를 집행 단계로 전환했음
- 이번 총회는 향후 10년간 조선·해운업의 경쟁 구도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평가되며 규범 조정 범위가 넓어 산업 전반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
- 한국 조선·해운업계는 온실가스(GHG) 전략 이행 규정, 전주기 배출(LCA) 기준 도입 논의, 자율운항(MASS) 안전요건, 디지털 단일창구 의무화 등 네 가지 핵심 의제를 주요 관심사로 두고 있음

[\(뉴스로드 2025.11.25\)](#)

3. EU, '통합 탄소제거 인증제' 첫 시행규정 확정...CRCF 본격 가동

- 유럽연합이 탄소 제거와 탄소농업을 통합하는 CRCF(Carbon Removals & Carbon Farming) 제도의 첫 시행규정을 확정하며 통합 인증제를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음
- CRCF는 DACCS·BioCCS 등 기술 기반 제거, 탄소농업·산림 조성 등 자연 기반 흡수, 제품 내 저장 등 다양한 제거 활동의 기준을 표준화해 품질·무결성 논란을 줄이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임
- EU 집행위원회가 최초로 시행규정을 채택하면서, 그동안 분절되어 운영되던 탄소 제거 방식들이 단일 규범 아래 통합 관리되는 기반이 마련됨

[\(임팩트온 2025.11.25\)](#)

국내 정책

1. 온실가스 배출권, 주식처럼 증권사 통해 거래 가능...24일부터 시범 운영

-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. 기존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 방식만 가능했으나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게 됨

-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등록부에서 거래방식을 직접거래에서 위탁거래로 변경 신청한 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참여하게 됨. 거래시간은 10~12시로 유지되고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 시작 시간은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됐음

- 이번 제도는 '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'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,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사고팔 수 있는 구조가 처음 도입된 것임

[\(아주경제 2025.11.23\)](#)

2. 제각각 기후예측 통합...'국가 표준 시나리오' 구축한다

- 정부가 기관별로 달랐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합해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구축하기로 했음. 앞으로는 지자체 등 개별 기관이 만든 시나리오를 기상청이 직접 검토·승인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힘

-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법·제도를 정비하고 산출 체계를 새로 구축할 계획임

- 시나리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·저장 규칙·재현성 등 과학적·기술적 기준을 부처 및 기관과 공유해 '한국형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체계(K-CMIP)'를 마련하는 구상임

[\(경향신문 2025.11.21\)](#)

3. EU 규제 앞두고 후업계 LCA 대응...기후부, 현대차·HL만도·KG와 MOU

-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동차 업계와 온실가스 전과정평가(LCA, Life Cycle Assessment)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음. EU가 2026년부터 자동차 생애주기 탄소배출 보고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임

- 협약에는 현대차·KIA·한국GM·르노코리아·KG모빌리티 등 5개 완성차 업체와 HL만도·HL클레무브·대주코레스 등 16개 부품사,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여했음

- 협약은 전과정평가 방법론 개발, 탄소배출 산정·검증 체계 구축, 데이터 관리 강화, 중소 부품사 대상 컨설팅·교육 확대, 국제 인증 대응 지원 등을 포함해 국내 제작·부품사의 LCA 대응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임

[\(뉴스1 2025.11.26\)](#)

글로벌 기업

1. 엑손모빌 '화학적 재활용' 놓고 '그린워싱' 공방 격화

- 엑손모빌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기초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'화학적 재활용'을 순환경제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유럽 각국에 정책지원을 요청했음
- 환경단체들은 엑손모빌이 말하는 화학적 재활용이 열분해를 통한 연료 전환에 가깝다며, 재활용이 아니라는 반박을 제기해 그린워싱 논란이 커지고 있음

[\(뉴스트리 2025.11.26\)](#)

2. '기후 적응' 투자 급등...기관투자자 우선순위 6위→3위로 올라

-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'지속가능한 신호, 기관 투자자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·유럽·아태 지역 기관투자자 950명 이상 중 자산소유자의 86%가 향후 2년 안에 지속가능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변했음. 자산운용사 역시 79%가 확대 의향을 밝혀 증가세가 확인됨
- 지속가능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자산소유자 2%, 자산운용사 3%에 그친 반면, 투자 확대의 주요 이유로 '성과 개선'이 꼽히면서 기후 적응 관련 투자 우선순위가 지난해 6위에서 3위로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음

[\(임팩트온 2025.11.26\)](#)

3. ESG 잘하는 기업, 매출·수익성도 높았다...“주주가치 훼손 증거 없어”

- 세계벤처마케팅연합(WBA)이 글로벌 기업 1155곳을 18개 핵심 사회지표(CSI)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, CSI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·투자자본수익률(ROCE)·총자산순이익률(ROA) 등 주요 재무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
- 기업 규모·지역·부채비율 등을 통제해 분석에서 CSI 점수 1점 상승 시 매출 1.27% 증가, ROCE 0.39%포인트 상승, ROA 0.17%포인트 상승이 확인됨

[\(임팩트온 2025.11.24\)](#)

4. 폭스바겐, 'LFP' 배터리 채택 준비 박차...中 고선 공급 시작

- 폭스바겐이 리튬인산철(LFP)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는 가운데, 지분 약 26%를 보유한 중국 고선하이테크(고선)로부터 배터리셀 공급을 시작했음. 고선은 중국 허페이 공장에서 폭스바겐그룹에 제공할 배터리셀 양산을 개시했다고 밝힘
- 고선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LFP를 포함한 배터리셀을 공급할 계획이며, 연간 20GWh 생산능력을 갖춘 허페이 공장을 기반으로 폭스바겐 중국 공장뿐 아니라 다른 국가 공장에도 배터리셀을 제공할 예정임

[\(지디넷 2025.11.23\)](#)

국내 기업

1. 국민연금,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덜 투자한다...ESG '감점' 확대

-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상장기업 투자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음. '연간 사망자 2명 이상' 등 감점 항목을 확대하고 감점 비율도 기존 산업안전 배점의 10%에서 33%로 강화했음
- 이는 '노동안전 종합대책' 후속 조치로, 앞으로 사망자 발생·중대산업사고·산재 은폐·미보고의 경우 모두 ESG 평가에서 감점이 적용돼 기업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임

[\(조선비즈 2025.11.24\)](#)

2. 미국 사업 '해쳐모여'...한화퓨처프루프, 방산·에너지 '빅텐트' 구축

- 한화그룹이 미국 투자 플랫폼 '한화퓨처프루프'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에너지·조선·방산 사업을 묶는 거대 투자 허브를 구성하고 있음. 한화솔루션이 보유 지분 50%를 신설 해외법인 '한화디펜스에너지'에 1조1407억원에 매각해 재편을 시작했음
- 매각 대금 중 약 2852억원은 한화큐셀 아메리카 홀딩스를 통해 퓨처프루프 유상증자에 투입됨. 나머지는 한화솔루션으로 유입됨

[\(머니S 2025.11.25\)](#)

3. 기후·환경 스타트업 22곳, '그린테크 얼라이언스' 설립 추진

- 기후·환경 분야 스타트업 22곳이 업종 협회인 '그린테크 얼라이언스' 설립을 추진함. 협회 인가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지정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참여 의지를 밝힘
- 이들은 지난달 기후부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음. 승인이 완료되면 회원사 확대와 함께 기후·환경 분야 스타트업의 공동 대응 플랫폼 역할을 본격화할 계획임

[\(서울경제 2025.11.24\)](#)

4. 대한항공·삼성E&A, 'K-SAF' 동맹으로 美 저탄소 항공유 시장 공략

- 대한항공과 삼성E&A는 미국 지속가능항공유(SAF) 시장 진출을 위해 SAF 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으며, 해외 SAF 프로젝트 발굴·장기 구매 검토·신기술 투자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음
- 양사는 미국을 첫 협력 대상지로 삼아 현지 SAF 생산·공급망 참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. 각사가 보유한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임

[\(이투데이 2025.11.21\)](#)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1.21(금) ~ 2025.11.27(목)

제공일시 2025 12 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EUDR 적용 1년 더 미뤄진다...기업, '추적·실사 체계' 준비 시간 확보

- 유럽연합(EU)이 산림파괴 연계 제품의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산림전용방지법(EUDR) 시행을 1년 추가 연기했으며,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26년 12월 30일부터, 중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규제가 적용되게 됐다
- 유럽의회는 시행 연기를 찬성 402표, 반대 250표, 기권 8표로 가결했음. 글로벌 기업들은 이번 결정으로 법안 준비 기간이 늘어났음
- EUDR은 2020년 12월 이후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지역에서 생산된 소·코코아·커피·팜유·대두·고무·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의 EU 내 유통을 금지하는 규제이며, 준비 기간 부족과 기업 부담을 이유로 두 차례 적용 시점이 연기됐음
- 유럽의회는 시행 연기와 함께 규제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음. EU 시장에 제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운영자가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유통 단계의 거래자는 제출 의무를 지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했음
- 영세 및 소규모 운영자는 일회성 간소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됨. 의회는 2026년 4월 30일까지 규제의 영향과 기업 행정 부담을 평가하는 간소화 검토를 실시할 계획임
- 기업들은 제품 설명, 생산국, 생산지의 GPS 좌표 등 지리정보와 공급자 정보를 포함한 실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. 위반 시 제품 판매 금지와 회수, 전년도 EU 역내 매출액의 최대 4%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
- 한국 기업도 규제 대상 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 추적 체계를 갖춰야 하며, 팜유·고무·목재·종이 제품 등 업종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음
- EU 집행위원회는 5월 22일 발표한 국가 벤치마킹 리스트에서 한국을 저위험국으로 분류했음. 저위험국 제품은 통관 물량의 1% 수준만 샘플링 검사를 받고 일부 위험 평가·위험 완화 조치가 생략되지만 핵심 실사 의무와 정보 제출 의무는 유지되고 있음
- 한편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시행 연기가 산림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려를 제기했고, 환경단체들은 정치적 용기의 실패라고 비판했음. 이번 표결이 중도우파와 극우가 연합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 두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

[\(임팩트우 2025 12 3\)](#)